

최석곤 회장, 2003 에너지절약의 달 간담회 참석

에너지유관단체장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11월 6일 용인소재 공단 본사에서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이하여 ESCO협회 최석곤 회장 등 에너지 유관단체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 에너지절약의 달 간담회'를 개최했다.

ESCO협회를 비롯해 한국열관리사협회, 한국보일러공업 협동조합, 한국대체에너지협회, 한국난방시공협회, 한국부하관리사업진흥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국내 주요 에너지관련 유관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아 겨울철 에너지 소비현황과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단체장들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은 난방에너지 등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85년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특히 올해는 전국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산업체, 군부대,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각종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요 행사로는 에너지절약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우수사례발표를 실시하는 제25회 에너지절약축진대회가 11월 12일 개최됐고, 한-중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 및 실무위원회가 부산 Marriott Hotel에서 열렸다. 또한 전국 각 지역별로 에너지절약기술보급 촉진을 위한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했으며, 에너지다소비기업, 수송시범 지정기업, 열사용기자재 제조 및 시공기업 등 에너지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포럼 및 간담회가 다양하게 열렸다. 에너지절약 홍보이벤트로는 지역별 가두캠페인, 에너지절약관련 워크숍 등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석곤 회장은 “에너지 유관단체 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절약에 뜻을 함께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모임을 계기로 앞으로 단체장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말은 분야에서 국내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단체장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직접부하제어센터, 에너지절약 홍보관을 방문하고, 직접부하제어사업, 소형 가스열병합발전, 고효율 유도전동기 보급,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증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선진수요관리 기법과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신기술 등 공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절약 사업에 대해서도 경청했다.

